



##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7월 30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교육청노조)에서 주관한 교육부의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 수당지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이날 모인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10여명을 포함한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노조임원 50여명은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 수당으로의 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이 되면서 2013년 3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및 직책수당,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되던 관리수당이 중단됐다.

학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육의 영역으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할 교육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

담시키고 이를 인건비의 일부와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들에게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노조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경비임에도, 이를 교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교육부나 이를 충실히 따르는 일부 교육감 모두가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학생교육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할 직접교육경비를 교원 수당으로 전락시킨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노조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총 이연일 수석부위원장과 안영근 사무총장이 낭독했으며, 기자회견에 앞서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이 참석자들을 응원하며 투쟁의

지를 북돋웠다.

이후 노조는 교육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경북교육노조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지부장 10여명 참석하였고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임원 및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해 투쟁의 힘을 모았다.





▶ 1면 사진기재에 따른 내용

# “경북교육노조” 2013년도 단체교섭 시작하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 8. 7. (수)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경북교육청과 제1차 본교섭(이하 '제1차 본교섭」)을 가졌다.

제1차 본교섭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교섭위원과 김종기 경북교육청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측 교섭대표의 인사, 교섭위원소개,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노조측 제안 설명과 요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이번 교섭도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은 “단체교섭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며 일부 의제는 교섭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장의 소리를 듣고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교섭의 또다른 소독”이라고 하면서, “노사 양측이 우리 교육청에 국한하지 말고 타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학교행정실 업무매뉴얼제작 △학교행정실장 6급 배치 △조치·인력의 적정배분 △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의 합리적 편성 △복지포인트 인상 △7급까지의 자동승진 등이 포함된 전문과 총직을 포함한 63개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였다.

노조측 요구사항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은 “2007년에 이루어진 교섭도 노사가 서로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번에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위원 협의회 개최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2013. 8. 28 (수) 구미도서관에서 2013년도 경북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대비하여 본교섭 및 실무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단체교섭기법과 교섭의제 설명을 하면서 “이번 단위기관교섭은 정부교섭과 달리 법과 제도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 아닌 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을 요구하는 것”이며 단체교섭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인 만큼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노조가 제출한 교섭의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법과 업무성격을 들먹이며 교섭대상이 아니라서 교섭의제에서 제외 한다는데 이는 아예 교섭을 말자는 소리와 같다”면서 “단체 교섭은 조합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되는 어떠한 안건도 모두 교섭의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 9. 4 (수) 14:00부터 경북교육청 1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교섭을 개최 하였다.

교섭에 앞서 교육청측의 교섭대표인 김태원 기획조정관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내에서는 전향적으로 수용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노조측에서는 김종기 위원장이 “2007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교섭인 만큼 노조의 요구에 적극 수용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날 교섭은 경북교육노조가 요구한 교섭요구안 중 기획조정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11건의 교섭의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교섭의제는 교섭자료실 참고)

이중 운전원 특근매식비와 공무원피복비지급, 동아리 활동권장과 지원, 도의회 서류제출 관련사항은 논란끝에 원안 수용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행정실근무환경 개선관련 재정 지원은 교육청측에서 수정 제안하여 노조측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예산과 수당관련 의제는 다음번 교섭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 경북교육노조 제1차 실무교섭 개최

## 경북교육노조 제2차 실무교섭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 9. 25. (수) 14:00부터 경북교육청 1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실무교섭을 개최 하였다.

교섭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청측의 교섭대표인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교육발전과 함께 하는 경북교육노조 활동에 대한 노고에 위로하고 앞으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하였다. 한편 노조측 김종기 위원장은 “노조활동과 조합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교섭안에 해당하는 관련부서인 만큼 노조의 요구에 적극 수용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2차 실무교섭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경북교육노조가 요구한 교섭요구

안 중 43개 항목의 교섭의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교섭의제는 교섭자료실 참고)

이중 조합원에 의한 선출직의 노조활동 보장과 연수기관의 신규 임용자 및 전문교육 시에 노동교육 실시, 인사 시 고충반영, 표창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수용 및 수정 내지 부분 수용을 하였고, 도교육청 전입 시 학교 근무 경력이 반영, 연수제도 개선 및 국외연수 확대도 수용 및 수정 수용을 하였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교섭안이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근무환경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상호간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날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지만 논의해보지 못한 안건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 안건은 차후에 다시 교섭하기로 하였다.

## ○ 단체교섭 절차... 이렇습니다

1	<b>교섭요구 (노조)</b>	기존단체 협약 만료 3월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설노조의 경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2	<b>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정부)</b>	교섭요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공고(7일간) -노조 적격성, 소관사항 여부 확인
3	<b>교섭 참여 신청 (관련 노조)</b>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참여 신청 -노조 적격성, 소관사항 여부 확인
4	<b>교섭</b>	교섭참여 노조가 없을 경우 교섭개시 -예비교섭 → 본교섭
5	<b>교섭노조 및 교섭위원회 선임 공고 (정부)</b>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참여 신청 -노조 적격성, 소관사항 여부 확인
6	<b>교섭창구 단일화 (노조)</b>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위원 선임 통보 -노조 자율 → 조합원 수 비례
7	<b>교섭요구 단일화 확정 통보 참여 신청 (관련 노조)</b>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참여 신청 -노조 적격성, 소관사항 여부 확인
8	<b>교섭</b>	예비 교섭 → 본 교섭



### 각급학교 행정실 근무시간 조례 시행 촉구 집회 참석



경북교육노조의 김종기 위원장과 박흥기 수석부위원장은 2013. 9. 2 (월) 경남교육노조(위원장 김성희)에서 개최한 각급학교 행정실 근무시간 조례 시행 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연대를 과시하였다.

이번 집회는 경남교육청에서 지난 5월에 통과된 각급학교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교원과 동일하게 되게 하도록 개정된 조례 시행을 불과 3일 앞두고 시행을 거부한 경남교육청에 조례 시행촉구를 위하여 개최 되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후 1인시위, 천막농성과 집회를 통해 9월 16일 교육청으로부터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쟁취하여 각급학교에 전면 시행중이다.

### 학교운영비 폐지에 관련 교육부 항의방문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함께 2013. 7. 11 (목)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관리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부를 방문하여 전국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교육부의 교원 우선 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행정실 법제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직종개편 전 전직시행에 있어서 전 직렬에 걸쳐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시행전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정병걸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과 오국현 사무총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안영근 사무총장,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교육노조 위원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 조합원 합격 기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 10. 19 (토)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있는 구미시 구미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응시자들을 격려·응원했다.

경북교육노조는 2013년 상반기(5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시험에 전원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따뜻한 다과와 필기구를 제공하였으며, 시험장을 찾은 조합원들은 위원장 및 임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 경북교육노조 제50차 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 10. 11 (금) 16:00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제50차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합원 복지 협약체결에 관한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조합원 기념품에 관한건 △기타 노조운영에 관한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안건을 심의 전 보고사항에서는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중학교 교원 연구비 지급 저지에 관한 사항, 지부순회에 관한 사항,경북교육노조소식지(자명중)발간 등을 보고 하였다.

이날 상정된 조합원 복지를 위한 협약 체결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한마음 체육대회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합원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날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경북교육노조 지부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상임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재 진행중인 교육청과의 교섭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 행정실을 방문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체 상임위원28명중 21명이 참석하였다.



### 제1회 영남지역 교육청 노조간부 워크숍 개최



영남지역 교육청노조(대구교육노조, 경북교육노조, 울산교육노조, 부산교육노조, 경남교육노조) 간부 40여명은 2013. 8. 9 (금)부터 1박2일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 노조 가맹조합중 영남지역의 5개노조 (조합원 7,000여명)의 노조 간부들의 친목도모와 연대력 강화로 노조활동의 성과 극대화와 노조간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쟁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 되었다.

워크숍은 김종기 경북교육노조위원장의 공무원직종개편 설명, 안전행정부사협력관실 조대성 기획총괄팀장의 바람직한 공무원노사관계,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의 조진호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오재형 위원장의 특강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튿날 아침 대구 팔공산 갖바위 등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종료 하였다.

다음 워크숍일정은 11월경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경북교육청의 문영규 기획관리국장과 대구시청 류재상위원장, 미래창조부노조 대구경북본부 김옥경 본부장 등이 방문하여 격려 하였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간담회 참석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13. 9. 5 (목) 10시부터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 이기숙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교육노조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실장들의 현황을 설명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현재 경북교육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학교회계직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적인 입장에 있다, 그러나 같은 노동자들임을 인식해 달라"면서 "이중적인 지위에서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기숙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

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노위에서는 이기숙 위원장과 조정과의 감독관들과 김종기 위원장과 정원상 사무총장이 참석 하였다.



#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경북교육노조 대의원 노동교육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3. 8. 12 (월) ~ 14 (수) 2박3일동안 소속 대의원 40여명은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노동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제4대 집행부가 취임하면서 경북교육노조 소속 대의원 전원에게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공무원노사관계관 정립 및 노사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개최하게 된 첫 번째 노동교육으로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교육은 공무원노사관계현황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손동희 교수의 강의와 경북교육청 강신기 인사담당사무원으로부터 인사실무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튿날 교육은 공무원노조법, 노사파트너쉽교육을, 마지막날에는 박태주교수의 공무원노조의 과제와 역할에 대한 강의로 교육을 마쳤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시간에 경북교육노조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노조가 출범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조합원 개개인들에게는 피부에 직접 변화는 없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에 필요한 노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한 대의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노사교육을 받았다면서 대의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의를 밝히기도 하였다.

# 한마음 체육대회 사전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후원하는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축제인 한마음 체육대회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회가 2013. 10. 21 (월) 경북교육청 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23개 시군지부장, 본조임원 및 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등 약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한마음 체육대회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요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경기종목과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결과 경기종목은 줄다리기, 400미터 이어 달리기, 훌라호프 돌리기 등으로 경기 장소는 봉화군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이후 경북교육청의 내부사정으로 2013. 11. 9 (토) 경산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결정되었다.



## \* 일정안내

### 11월 4일 ~ 5일

- ▶ 경북교육노조 공무원 노사관계 제2차 대의원 노동교육
- ▶ 장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11월 9일 10:00 ~ 17:00

- ▶ 제8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
- ▶ 장소 : 경산 육상경기장

### 11월 11일 19:00 ~ 21:00

- ▶ 고3수험생, 학부모 및 교직원과 함께하는 제1회 젊은이들의 한마당(포항지부)
- ▶ 장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

### 11월 15일 17:00

- ▶ 경북교육노조 「구미지부」 총회 및 송년의 밤
- ▶ 장소 : (구)금오공대 비즈니스센터 지하



# 미혼모 지원시설 추석맞이 봉사활동 전개

## 일손돕기 및 물품전달

공무원노총은 9월 16일(월) 안전행정부와 함께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미혼모 지원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애란원은 미혼모 생활시설로서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 보호, 상담, 교육 등 어려움을 처한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기관이며, 공무원노총과 안행부는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모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봉사활동은 애란원 한상순 원장의 미혼모 지원시설 현황정취,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 주방 대청소, 시설에서 부족한 각종 유아용품을 준비하여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애란원 한상순 원장은 “미혼모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자립을 유도하여 미래의 중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립의지가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주먹구구식의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노총에서도 교육과 취업 등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 방법

# 2008 대정부단체교섭 본교섭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2008 대정부 단체교섭 본교섭위원회 (대표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는 10월 18일(금) 공무원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사항 보고 △2008 대정부 교섭 촉구 공문 발송(안 전행정부) △단체교섭 은나가처분 신청

판결 촉구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단체교섭참여 노동조합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과 단체교섭 은나가처분 신청 판결촉구관련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박찬우 제1차관은 “현재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애란원에서 대신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진호 위원장을 비롯한,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윤주용 광역연맹 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한선우 조직홍보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행부에서는 박찬우 제1차관, 김혜순 공무원노사협력국장 외 4명이 참석했다.



#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 인상률 반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선전물 배포 및 1인시위도 전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9월 13일(금)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보수인상률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보수 결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 할 것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9월 12일 한국일보 외 언론에서 '2014년 공무원 보수 동결'에 대한 보도와 9월 13일 서울신문에서 '직급별 차등 인상'에 대한 언론이 보도됐다.

이에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총은 전국 단위노조 임원 70여명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노사관계를 바로 잡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 우렁에 대한 규탄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전개한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해 끝

없이 희생만을 요구해왔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은 최근 2년 동안의 보수 동결도 경제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통분담을 해왔지만,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의 보수인상률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윤 공무원보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며 “현실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후 공무원노총은 다시 한 번 더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기를 꺾는 행태가 확인될 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점심시간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선전전을 전개했다. 또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연방별로 조를 나누어 1인시위를 전개했다.

# 2013 제2차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실시

## 가맹조합 위원장 및 사무총장 참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9월 2일(월)~4일(수) 2박 3일 동안 대전한화리조트에서 '2013 제2차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동교육은 공무원노총이 201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시한 것으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특히, 공무원노총 특위인 연금위원회의 공무원 연금교육을 겸했다.

노동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조진호 위원장의 '공무원노사관계의 이해', 윤호숙 노동자교육센터 사무처장의 '노조활동과 민주적 조직운영', 박안희 노동자교육센터 연구위원장의 '회의진행과 토론방법', 김진순 노동자교육센터 대표의 '노동자 삶과 철학'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연금교육으로 연금위원회 오성택 위원장의 '연금위원회 토론'을 통해 연금 대책 투쟁에 대해 논의 했으며, 안전행정부 천지윤 연금복지과장의 '공무원연금의 이해'를 강의했다.

# 민주당 국민운동본부 격려방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8월 14일(수) 산하 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1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 위치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에 격려차 방문했다.

강기정 의원, 전정희 의원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을 위해 나섰다”며 “공무원노총의 방문이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 공무원 현안사업에 함께 힘써보자”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진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연철 수석부위원장, 변혁철 부위원장, 윤주용 광역연맹위원장, 이창희 미래창조과학부노조 위원장, 이성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오국현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제8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 일시 : 2013년 11월 9일(토) 10:00 ~ 17:00
- ☞ 장소 : 경산 육상경기장(경산 실내체육관 옆)
- ☞ 경기종목 : 4종목(웃놀이, 800m계주, 단체줄다리기, 훌라후프돌리기)

일 정	주 요 내 용
10:00 ~ 10:30	식전행사(난타공연, 백년대계)
10:30 ~ 11:00	개회식(국민의례, 개회선언, 내빈소개, 환영사, 대회사, 축사, 선수선서)
11:00 ~ 12:30	웃놀이, 단체줄다리기 : 예선, 800m계주, 훌라후프돌리기 : 준결승까지 운영
12:30 ~ 13:30	점심시간(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점심시간 없이 경기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식사)
13:30 ~ 16:30	웃놀이, 단체줄다리기 : 준결승, 결승, 800m계주, 훌라후프돌리기 : 결승
16:30 ~ 17:00	폐회식

**알립니다**  
 체육대회 당일 경북교육노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예정

##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자명종'에서는 조합원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글을

cjy2658@gyo6.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한 \_ 수시접수

분량 \_ 200자 원고지 10매이하 또는 A4 2장 자유분량

장르 \_ 시, 수필, 칼럼, 논평등 제한없음

※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과 필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시오.



### 알려라 권익론!

제66회 지예롭게 공무를 처리한 관리  
 - 정백리 김신국 선생일화



김신국선생이 인조5년(1628년) 호조판서로 재직할 때의 일화로, 당시 청나라로 보낸 은을 창고에서 꺼내어 상자로 봉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을 때 호조의 관리하나가 대신을 등에 업고 은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선생은 그 행위를 확인한 후 기지를 발휘하여 은을 지키고 관리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현명한 해결을 하셨다고 한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